

해 외 낙 농 소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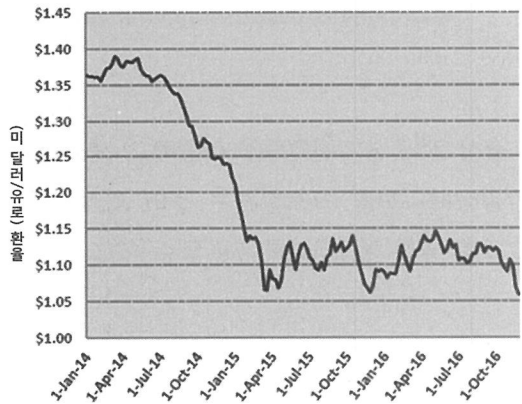
조 석 진
협회 낙농정책연구소 소장

미국의 치즈수출 EU와의 경쟁에 직면

2017년도 미국의 유제품 수출액은 53억 달러로 예측되었으나 국제시장에서 EU의 강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2014년에 36만 8천 톤을 수출하여 사상 최대를 기록한 치즈의 경우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2014년도에 러시아는 EU 등 주요 수출국의 유제품을 포함한 여러 상품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내렸다. 그로 인해 2014년 러시아에 대한 EU의 치즈수출은 2013년의 25만 7천 톤에서 5천 톤 미만으로 격감하는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 그 이후 2016년에 EU는 러시아에 대한 치즈수출을 82만 톤까지 늘렸으며, 2017년에는 82만 5천 톤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다.

대조적으로 미국의 치즈수출은 2014년에 36만 8천 2백 톤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28만 톤과 28만 6천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결과는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유로화에 대한 미 달러화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미국 유제품의 수출경쟁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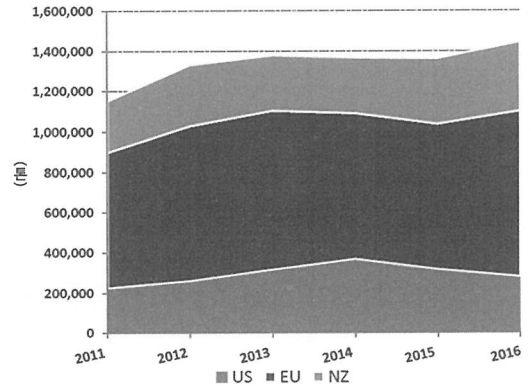
<그림 1> 유로화에 대한 미 달러화의 환율 추이

2014년에 국제시장에서 치즈 1톤을 3,600달러에 판매하면, EU의 낙농가들은 2,700유로의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오늘날 같은 치즈 1톤을 판매할 경우 26%가 증가한 3,400유로를 받는다. 이 같은 EU 낙농가의 이익증대는 주로 아시아시장에서의 미국산 치즈의 수출감소에 따른 결과이다.

예를 들면, 한국시장의 경우 2016년 10월까지 미국산 치즈수입은 31%가 감소한 반면, EU산 치즈수입은 43%가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미국이 점유하고 있던 한국시장을 EU가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미국, EU, 뉴질랜드 등 국제시장의 주요 3대 치즈수출국 중 미국의 수출량만이 하락하였

다. 이 같은 추세는 2017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며, 달러화의 강세가 유지되는 한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주요 3개 치즈수출국의 수출추이

출처: USDA(Dairy World Markets and Trade, 2016.12)
번역: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

출산 전 절뚝거림의 예방은 출산 후 다리건강에 필수적

출산 전에 발가락염증을 예방하고, 출산 후의 건강상태악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초산 후 및 그 이후 발의 건강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영국 원예농업개발공사(ADHB)의 낙농기술자인 Gibbons 박사는, 최근 Sherborne의 Blackmarsh 목장에서 실시된 '송아지에서 출산까지'라는 강연



을 통해 지금이 동절기간의 우사 내 사육을 하는 동안 소의 발가락염증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최적 기라고 말했다.


그녀는 발가락염증은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이며, 만일 당신의 처녀소가 발가락염증에 걸렸다면, 반드시 치료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출산스트레스로 인해 염증이 악화되고, 마침내는 우사 내의 다른 소에게까지 감염이 우려된다고 했다. 미국 위스콘신대학의 연구결과, “발가락염증이 걸린 채 출산을 한 처녀소의 경우 1차 종부애 따른 임신율이 55%나 낮았으며, 출산 후 305일 보정유량도 334kg이 적었다.”고 했다.

Gibbons 박사는 발가락염증의 예방을 위해, 임신 중인 소의 발가락염증을 초기에 발견하여 감염을 막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를 위해 임신우의 우사를 돌아보며, 육안으로 발 뒤꿈치의 피부병변을 살펴볼 것을 조언하였다. 그 경우 만일 초기증상이 발견되면 환부를 세척하고, 마른 후에 국부 스프레이로 치료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우사 내의 슬러리를 제때에 처리하여 슬러리가 쌓이지 않게 함으로써 환부가 슬러리에 닿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만일 처녀소가 발가락염증에 감염된 징후가 나타나면, 또 다른 병변을 막기 위해 그 소를 발 목욕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경우 욕조 물의 깊이는 오염된 부분을 청결히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깊어서 발굽을 물에 담글 수 있어야 한다.”고 그녀는 말했다.

최근 Dorset의 행사에서 Gibbons 박사는 출산 후 경산우, 초산우 모두에 있어서 신체건강상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Nottingham 대학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출산 후 등지방이 감소하여 등지방 두께가 얇아지는 경우 발바닥궤양이나 발바닥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관절 내 지방층의 감소 혹은 발의 충격흡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이라 했다.

또한 Gibbons 박사는, “출산 시 발의 인대부분이 느슨해지면서 발의 뼈가 내려앉아 조이거나 멍들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결국 발바닥궤양이나 멍으로 나타난다. 동시에 처녀소가 첫 출산을 할 경우 몸의 성숙도가 90% 정도에 불과해, 충격을 흡수하는 지방층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위험이 더욱 가중된다.”고 했다.

소가 다리를 저는 것을 막기 위해 출산을 전후해서 몸 상태가 악화되는 것과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처녀소의 집단을 분리해서 관리하지 않는 경우, 사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사 내 분위기가 안정됐을 때 저녁 무렵에 처녀소를 두 마리 혹은 세 마리로 분리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가 편하게 사료를 섭취하거나 누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사료섭취를 위해서는 사료를 섭취하는 공간을 넓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출처: TheCattleSite News Desk(2016, 12, 1)
번역: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